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다. 세상이 충분히 바뀌었는지는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용렬한 나로서는 이만하면 만족이다. 설사 덜 바뀌었다고 해도 근 20년 이상 꿈을 쫓았으니 그만하면 되었다. 두 번째 소망도 뒤늦게 직장을 얻어 처음으로 가장 노릇하면서, 언제 떨어질까 하는 모가지 걱정을 주말에 기를 쓰고 가는 등산으로 달래는 정말 평범한 놈이 되었다. 하지만 제 어머니 반생을 잡아먹은 한은 결코 달래지지도 씻겨지지도 않는다. 필경 영원히 그럴 것이다.

내 친구 가운데는 부친보다 먼저 세상을 뜬 이가 있다. 운명의 '학생운동 졸업식'을 같이 치렀던 나의 긴급조치9호 위반 공범 유구영 역시 10년 전에 죽었다. 그날 도서관에서 학생들을 이끌고 강당 앞에서 나와 합류하기로 했는데, 내가 오래 못 버티는 바람에 어긋나 버렸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나와 비슷한 삶의 길을 걸어 역시 부모님을 진창으로 끌어들이었다. 감옥살이, 위장 취업, 반 백수, 가난, 신세지기 등등, 그렇고 그런 전형이었다. 중국에는 노동단체에서 일하다 너무 바빠 간담이 진행되는 줄도 모르고 죽었다. 그의 부친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해마다 오월이면 마석 모란 묘지에 나타나 우리들을 안쓰럽게 한다. 그 녀석에 비하면 나의 불효는 새발의 피다. 하지만 난 살아 있고, 따라서 죄책의 형벌을 끊임없이 당하고 있다.

긴급조치9호, 그 유치하고도 우악스러운 권력의 장난으로 많은 사람이 고초를 겪었다.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의 인생도 제법 달라졌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 어머니들의 인생만큼 극적으로 달라진 경우는 없을 것이다. 당사자들이야 박해를 각오하고 선택의 행위를 했다고 치자. 다시 말해 저 좋아서 한 일 아닌가? 하지만 영문도 모른 채 엉터리 같은 시대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간 어머니와 같은 분들의 한은 누가 어떻게 풀어 드릴 수 있을까?

풀지도 갚지도 못할 것이다. 살아서는 물론이고 수십 번 다시 태어나 머리털로 신을 삼아 드린다고 해도 이승에서 받은 어머니 사랑은 갚지 못할 테고, 어머니를 잡아먹은 죄값도 영원히 치루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에 관한 한 나는 아직도 긴급조치9호 아래에 있다.

자유와 민주에서 차별금지와 화해, 그리고 평화로



우 원 식 연세대 토목공학과 76학번, 여성민우회 환경센터 자문위원, 환경관리공단 관리이사, 노무현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자문위원, 제17대 국회의원(서울·노원),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현)

혜진에게

너를 만난지 일주일도 조금 지났구나. 학교에서 내준 '꿈'에 관한 숙제를 위해 나를 만나고 싶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조금 당황했다. 왜 너의 꿈을 이야기하는 숙제 때문에 나를 만나야 하는지, 만나고 나니까 다 이해가 됐다. 너는 정치인이 되는 '꿈'을 갖고 있었고, 그 꿈을 어떻게 실현하며 그 꿈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자고 한 것이었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너와 이야기를 나눈 시간은 매우 즐거웠다. 너와 같이 맑고 밝게 사는 청소년과 이야기하는 것은 어른들에게는 행복이란다. 또 한편으로는 너처럼 어떤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움을 갖게 된다. 혜진이 아버지님 연세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너의 아버지님 세대, 우리 세대는 어떤 꿈을 갖고 그 꿈을 키워나가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할 여유가 별로 없었던단다.

그래서 오늘은 너에게 혜진이 아버지님 세대,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왜 그런 여유가 없었는지, 그리고 그런 세월을 왜 굳이 맑고 밝은 꿈을 꾸며 사는 너에게 이야기하려는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편지로 쓰고 싶다. 일본의 역사 왜곡을 보더라도 우리는 아무리 불행했던 과

거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또 그런 과거 이해가 너의 부모님 세대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지.

혜진아, 사람들은 보통 영화와 같은 현실, 소설과 같은 현실을 가끔 이야기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현실이 오히려 영화보다도, 소설보다도 더 극적일 때가 많단다. 2002년 월드컵 때를 기억하니? 어떤 영화에서 어떤 소설에서 그런 감동을 그릴 수 있겠니. 그렇게 현실은 때론 영화나 소설보다 더 감동으로 다가오기도 한단다.

그런데 혜진아.

어떤 경우에는 현실이 영화나 소설보다도 더 어둡고 암울한 경우도 있단다. 아직 읽지 않겠지만, 조지 오웰의 <1984년>이라는 소설이 있지. 그 소설은 국민 모두가 감시받고 그 어떤 자유로운 행동도 생각도 할 수 없는 현실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그런 현실보다 더 어둡고 암울한 시대가 우리 역사에 있었다는 사실, 이해할 수 있겠니? 너의 아버님이나 우리는 그런 시대에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냈단다.

사람들은 보통 그때를 긴급조치 시절이라고 한다. 긴급조치 시절은 그 어떤 영화나 소설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두운 현실이었지. 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미성년자 입장불가라 네가 아직 보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줄거리가 들어서 알지 않을까. ‘올드 보이’라는 영화, 잘 알지? 그 영화 주인공 오대수는 어느 날 갑자기 납치되어 15년 동안을 닫힌 공간에서 살게 된다. 그 긴 세월을 주인공 오대수는 밖의 세계를 동경하며 살게 되는데, 긴급조치 시절이 바로 그런 세월이었다.

막혀 있었지, 그때는. 자유가 막혀 있었고 민주주의가 막혀 있었지, 그때는. 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구나. 내가 겪은 한 사건을 이야기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르겠다. 마침 오늘은 4월 혁명 45주년이기도 하니까. 4.19와 관계된 이야기를 하자꾸나. 4.19가 어떤 날인지 너도 학교에서 배워 잘 알겠지? 지금 내가 이야기하려는 배경은 4.19혁명 17주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8년 전 이야기란다.

1977년 나는 그때 대학교 2학년이었지. 지금처럼 그날도 교정에는 아름다운 꽃이 만발했지. 그러나 나는 그 꽃을 감상할 수 없었다. 그날 나는 몇몇 선배, 친구들과 함께 하얀 백지를 학생들에게 나눠주었다. 하얀 종이를 친구들에게 나눠준 게 무슨 이야기거리냐고? 바로 그

래서 이야기하는 것이란다. 그때 교정에서 하얀 백지를 친구들에게 나눠주던 나와 선배와 친구를 경찰이 바로 잡아 갔단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백지를 나눠줬다는 이유로 경찰에 잡혀가던 시절을.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백지를 나눠주던 우리는 신촌역 앞 파출소로 연행되었다. 경찰들은 그 백지를 모두 압수해서 불에 비춰보고, 물에 담가보고, 다리미를 구해 다려보기도 하고... 하지만 아무 것도 없었지. 그저 백지였을 뿐.

그래서 중간고사 기간이라 공부할 때 연습지로 쓰라고 나눠주었는데 왜 연행했냐고 따져 물었지. 그랬더니 경찰이 뭐라했는지 아니? 참 내. 지금도 생각하면 우습기만 하다. 그때 우리를 조사하던 형사는 이렇게 말했다.

“잔소리 마, 죄목은 이심전심 유언비어 유포죄야”

아직도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되지? 그럴 것이다. 밝은 세계에서 어두운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않겠지. 아무튼 그때 우리는 백지를 나눠주면서 마음 속으로 이렇게 외쳤단다.

“오늘은 4.19입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시 학생이었던 우리는 왜 4.19인데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을까? 그때는 학교에 경찰들이 상주해 있다가 서넛이 모이기만 해도 무슨 소리를 하나 엿듣던 때였단다. 그리고 누가 4월 혁명을 이야기하면 바로 잡아갔었지.

학생이 학교에서 4월혁명을 이야기하지 못하던 시절, 그때가 바로 긴급조치 시절이란다. 그래서 앞에서 “어떤 꿈을 갖고 그 꿈을 키워나가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할 여유가 별로 없었다”고 말했지. 아무도 없는 뒷골목에서 떨리는 손으로 ‘민주주의여 만세’를 써야 했던 것은 시인의 상상력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이었지. 자유와 민주주의, 그 이외의 꿈을 갖기에 긴급조치 시절은 너무도 어두웠단다.

하지만 그때 그렇게 찾고자 했던 자유와 민주주의가 이제는 어느정도 성숙해 혜진이 세대들은 세상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맑고 밝게 사는 혜진이 세대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단다. 긴급조치 시절, 우리들이 그렇게 외쳤던 자유와 민주주의는 이제 다음과 같은 새로운 과제로 변했다는 것이야.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 열심히 일한 만큼 잘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시절을 기억한다는 것은 지난 시절의 회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민하는 것을 의미하지. 이것은 우리만의 몫이 아니라 혜진이와 같은 미래 세대에게도 남아 있는 과제란다.

장애나 성별 혹은 가난을 이유로 이웃이나 친구를 차별하지 않겠다는 다짐, 환경과 지구를 생각하는 자세, 너희 세대들이 그런 것을 갖게 될 때야 비로소 그 어려웠던 긴급조치 시절,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쳤던 보람이 생기는 것이란다.

혜진이의 꿈이 꼭 이루어져 우리 나라의 정치가 더욱 더 발전해 가기를 기원한다. 다시 만날 때는 혜진이가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럼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은 이만.

45주년 4.19 날에 우원식 씀.

_숨술한 기억-1979년 9월 정기 고연진 시위



이 명 식 고려대 행정학과 76학번,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조직국장,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당보주간, 노무현대통령후보 덕양을선거대책위원장, 참여시대고양포럼 이사장(현)

식막한 시절

긴급조치9호가 선포된 이후 30년이 흘렀다. 까마득한 옛 일인데 지금도 긴급조치 시대를 머리에 떠올리면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진다. '과연 박정희 독재가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을까' '우리나라도 박정희 이외의 사람이 대통령을 하는 날이 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학시절을 모두 보냈으니 가슴이 확 막히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75년도에 긴급조치가 발동되었고, 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죽은 다음에 해제되었으니 76학번의 경우는 대학 4년을 긴급조치 하에서 몽땅 보낸 셈이다.

긴급조치9호 상태의 대학에서는 경찰들이 사복을 입고 대학에 상주하면서 학생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했고, 학교 정문 바로 입구에 경찰들이 출퇴근을 체크하고 지시를 받는 초소가 운영되는 그런 시절이었다.

76년에 고대 법대에 입학해서는 남들처럼 고사를 볼까 생각도 했지만 도대체 말도 되지 않는 유신헌법을 사법하겠다고 목표를 삼고 대학시절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 도저히 마음 속 으로부터 용납되지 않았다.